

수학, 물리학 다큐멘터리는 없나요?

글 | 박성철 _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강사 sc0314@freechal.com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았다. 지난 3월 5일, KBS에서 방영한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편이다. 쥐는 물론 꿩, 토끼 심지어 새끼 고라니까지, 수리부엉이의 전천후 사냥 장면은 흥미진진했다. 마치 스텔스 비행기처럼 소리 없이 날아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사냥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저 장면을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까? 제작진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자연다큐멘터리 한계를 넘지 못하는 국내 프로그램

동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동물들의 서식지는 대부분 인간의 생활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멋진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를 기다려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초인적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동물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장비와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제작과정 자체가 한 편의 훌륭한 휴먼드라마가 되기도 한다. 꼬박 이틀을 날아가야 하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풍토병과 싸워가며 악전고투하는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2002년, MBC)' 제작진의 모습이 그랬다.

하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맹금류인데다 야행성이기까지 한 수리부엉이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야 하는 어려움이야 오죽했으랴. 짐작대로 '수리부엉이' 한 편의 제작에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제작진은 초고속 촬영과 야간조명 등 기술적 어려움 뿐 아니라 긴장 속의 야간촬영이 계속되면서 극도의 체력적 한계에 직면했

었음을 토로했다. 어쩌면 열정과 사명감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장르가 동물다큐멘터리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이다. 어린이들이 시청하기에 평일 밤 10시는 너무 늦은 시간이다. 저녁식사 후, 아이와 부모가 둘러앉아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대신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호사일까?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의 과학프로그램인 'NOVA' 시리즈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편성을 20년 이상 고수하고 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녀들도 매주 화요일 8시면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 그들은 프로그램의 질만큼이나 황금시간대에 정규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과학프로그램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제작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방송사 내부의 홀대와 사회적 무관심인지도 모른다.

치밀한 구성과 기획력보다는 장인적 노력에 의존한 일방적 정보 전달이라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수리부엉이'는 우리 나라 자연 다큐멘터리의 일정한 성취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과학다큐멘터리가 넘지 못하고 있는 장벽은 동식물, 환경, 생태 중심의 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 3사는 각기 자사의 이름을 붙인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 중이다. 그 프로그램들에는 종종 과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다룬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자연환경과 동물의 생태를 다룬 것들이다. '과학다큐멘터리' 보다는 '자연다큐멘터리'가 적절하고 더 자연스럽다.

즉,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과학은 대부분 생물학이라는 과학의

한 영역으로 한정된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다. 학생들이 그래도 덜 싫어하는 과학 과목이 생물학이다. 텔레비전이 과학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려면, 오히려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일반인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더욱 싫어하는 분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지도 모른다.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물론, 수학이나 물리학 영역의 아이টে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টে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발한 상상력, 창의적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림'이 필요하다. 동식물과 같은 구체적 대상을 다루는 생물학과 달리,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체계인 수학과 물리학의 이름을 걸고 카메라를 들이댈 만한 대상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수학의 집합론이나 물리학의 양자론을 프로그램의 소재로 선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무엇을 찍을 것인가?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모의실험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제작진이 직접 화면을 만들어 내거나 과학자의 인터뷰로 채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의 생태와 신비한 자연환경은 적어도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는 소재인 것이다.

기초과학분야도 기획력·구성력으로 프로그램 제작 가능

그러나, 1984년 'NOVA' 시리즈의 총제작책임자가 된 폴라 아스펠은 이러한 통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자연과 동물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케이블 텔레비전의 크고 작은 전문채널들은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는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NOVA가 의존했던 전통적 소재들을 청산하고 기초과학 분야로 눈을 돌렸다. 우주의 생성, 물질의 기본법칙 등 누구나 재미없다고 여기는 주제들도 치밀한 기획력과 탄탄한 구성을 갖춘다면 시청자들 눈길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끈 이론을 다룬 '우아한 우주'는 NOVA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1998년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브라이언 그린 컬럼비아대 교수의 동명 저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7개의 서로 다른 차원, 이것들이 얽혀서 만들어 내는 제2, 제3의 우주 등 3차원 공간과 시간 차원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이론물리학의


최신 이론인 끈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제작 권리를 허가받기 위해 원저자인 그린 박사를 찾아 온 제작진은 아예 그를 프로그램의 해설자로 출연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는 대학시절 음악과 연극도 같이 전공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제작과정에도 깊이 관여해서, 전문 디자이너, 아티스트 등과 함께 몇 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끈 이론을 훌륭하게 영상화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과학다큐멘터리가 자연다큐멘터리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과학적 토픽을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으로 다루기를 기대한다.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미디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자연다큐멘터리만으로 과학을 이해시키고 과학적 사고를 유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계와 과학자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과학자들이 그러한 활동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왔다.

문제는 전문분야의 과학자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이고, 언제나 초치기로 달려드는 방송국과 제작사의 조급함이다. NOVA의 아이টে들은 모두 2~3년 전에 기획에 들어가며, 어떤 아이টে는 기획을 마치고 자금조달을 위해서만 4년을 준비해야 했다고 한다. 덧붙여, 과학자들의 자문과 참여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기 연예인에게는 경쟁적으로 수억 원의 출연료를 지출하면서도,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원생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다.

양질의 과학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주지 않고서는 태어날 수 없다. 이러한 작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한 편의 훌륭한 과학프로그램이 몇 편의 SCI 논문 이상으로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 과학문화아카데미 교수부장,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을 지냈다.